

3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종다리 뜨는 아침 언덕 위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少年)이었다.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리었고
㉠ 가벼운 날개 밑에 머-리리 수평선(水平線)이 층계(層
階)처럼 낮더라.

자주 투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단애(斷崖)의 허리에
개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비웃었다

오늘 ㉢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오르는
두 놈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염이 코밑에 미운 너와 나는
또다시 가슴이 등근 소년일 수 없구나.

- 김기림, 「추억(追憶)」 -

(나) 흰 나비가 소매도 건지 않고

㉡ 봄비를 건너간다
비를 맞으며 맞지 않으며

그 고요한 날갯짓에는
보이지 않는 격렬함이 깃들어 있어
날개를 둘러싼 고운 가루가
천 배나 무거운 빗방울을 튕겨내고 있다
모든 날개는 몸을 태우고 남은 재이니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면서도
걸음이 가볍고 가벼운 저 사람
슬픔을 물리치는 힘 고요해
봄비 건너는 나비처럼 고요해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 그는 남몰래 가졌을까
옷 한 벌, 흰 재로 지어진

- 나희덕, 「재로 지어진 옷」 -

(다) I

시(詩)를 쓰는,
이 아래층에서는 아낙네들이
계(契)를 모은다.
목이 마려워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층층대는 아홉 칸.
열에 하나가 부족한,
발바닥으로
지상(地上)에 하강(下降)한다.

II

열에 하나가 부족한,
㉤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疾走)한다.
달려도 달려도 열에
하나가 부족한

그것은
골인 없는 백열경주(白熱競走).

III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면
상층(上層)은
공기가 희박했다.

- 박목월, 「상하(上下)」 -

1.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의 주된 대비 양상을 정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대비’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거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어서 시상 전개 방식으로 자주 쓰인다. (가)~(다)에서도 이러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비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가)	(나)	(다)
① 시간의 대비	심상의 대비	공간의 대비
② 시간의 대비	공간의 대비	심상의 대비
③ 심상의 대비	시간의 대비	공간의 대비
④ 공간의 대비	시간의 대비	심상의 대비
⑤ 공간의 대비	심상의 대비	시간의 대비

2.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시인이 (다)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와 (다)에서 우리는 현실적 어려움과 대면하며 시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에 드러난 어려움이 시 창작자로서의 고통에 해당한다면, (다)에는 이와 더불어 생활인으로서의 고통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와 (다)는 시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이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다)의 화자가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모습은, ‘흰 나비’의 ‘고요한 날갯짓’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다)에서 ‘지상에 하강’하는 화자의 모습은, ‘그’가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 ③ (다)의 화자가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하고 나면, ‘흰 나비’와 같이 ‘몸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질 수 있을 거야.
- ④ (다)의 화자가 ‘골인 없는 백열경주’를 하는 모습에서, ‘슬픔을 물리’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다)의 화자가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간이 일직선상에서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고 보는 것과는 달리 신화적 시간관에서는 시간을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간 인식에 따르면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회귀를 통해 인간은 현재적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 ① ‘언덕’이라는 동일한 배경은, ‘너와 나’가 ‘유년 시절’로 회귀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 ②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라는 표현에서, ‘오늘’이라는 현재적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③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게 된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신화적 시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④ 현재의 시간을 ‘노을’에 대응시켜 ‘아침’이었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에서, 인생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알 수 있다.
- ⑤ ‘꿈 많은 소년’이었던 ‘그날’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시간에 대한 신화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과거로의 회귀에 해당한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 모순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 어순을 도치시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재혼해 독자인 ‘나’를 낳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귀향을 결심하고, ‘나’는 아버지의 귀향길에 동행한다. 아버지는 고향의 어느 보리밭 돌무더기를 삼으로 걸어내면서, 자신이 6·25 전쟁 때 인민군의 편에 서서 동네 사람들을 곤궁에 빠뜨렸음을 털어놓는다.

행색이 마을 사람들인 듯싶은 세 사람의 남자가 그 돌다리를 건너 우리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묘한 예감으로 몸이 떨려움을 의식하면서 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따라 마을을 지나는 인민군 패잔병도 없었고(있어봤자 제까짓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마는…….) 구름 잔뜩 낀 하늘은 쉽게 어둠을 몰아왔다.

눈이 뒤집힌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부모처자의 얼굴은 한번 봐줘야 한다며 그를 안방 문 앞에 세웠다. 재갈이 물린 채 자기를 쳐다보는 집안 식구들의 그 처연한 눈빛.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맥락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까지 끌려왔던 거다.”

아버지의 얼굴에 땀이 번질거렸다. 구덩이는 이미 허리 높이 만큼 깊어져 있었고 그는 삽질을 아주 조심조심 해 나갔다. 징검다리를 건너 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 이쪽 보리밭으로 오르는 계곡으로 접어든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물린 재갈을 풀어주지 않더구나.”

그것만 풀어주면 목 놓아 영영 울고 싶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를 백 번 만 번이라도 외쳐 살고 싶었다. 난 사대 독자야, 내가 죽어선 안 돼—그렇게 외쳐 그네들의 동정을 받고도 싶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물린 재갈을 풀지 않았다.

손 묶인 건 풀지!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그는 행하니 입을 벌린 구덩이를 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산 채로 밀어넣을 모양이었다. 그는 풀린 두 손을 들어 입에 물린 재갈을 벗기려고 했다. 그러나 완강한 팔목들이 그의 양어깨를 감싸고 있어 그것은 불가능했다.

빨리 쳐넣어!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이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필사의 힘을 다해 발버둥쳤다. 구덩이로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은 지연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구덩이 속으로 누군가 폴짝 떨어져내렸다. 누구야? 놀란 목소리로 누군가 소리 질렀다. 그러나 구덩이 속에선 얇은 신음 소리가 잠깐 들렸을 뿐이었다. 한 사람이 성냥을 그었다. 여자였다. 누군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 엮어진 여자를 하늘을 향해 정면으로 뉘었다. 얇은 훌저고리 하나인 그네 젓가슴 왼쪽에 같이 꽂힌 채였다.

죽었어!

밑의 사내가 구덩이에서 기어오르며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리밭에 놓은 채 망연자실 구덩이 속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귀에 속삭였다.

이 몫쓸 것아! 네 처가 대신 죽은 거야.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왜 이러구 있어? 이 죽일 놈아! 어서……!

아버지는 삽을 구덩이 밖으로 내던진 채 맨손으로 흙을 파

고 있었다. 마을에서 올라온 세 사람이 우리들 곁에 다가와 있는 기척도 모른 채.

한 사람은 탐골 박씨였고, 사십 전후가 돼 보이는 두 사람은 그 차림새로 보아 이 마을 사람이 분명한테 내게는 초면인 얼굴들이었다.

“이보게, 만배! 거 뭘 허구 있는 게여?”

아버지가 몸을 일으켰다.

“자네, 이 사람들 얼굴 보면 모르겠나?”

이처럼 놀란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본 일이 없다.

“놀라긴, 자네 처남들이야!”

아버지가 말해 준 그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의 얼굴을 나는 곧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빼앗아온 그 처녀의 남동생들은 나를 향해 조금 웃어 보였다.

“매형, 올라오세유!”

그들 형제는 구덩이 속의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누님은 우리 둘이서 몇 해 전에 딴 데다 모셨는걸유. 바로 저기…….”

그들 중의 하나가 우리들이 서 있는 보리밭 저쪽 좀 더 양지바르고 전망 좋은 데의 바로 그 무덤을 가리켜 보였다.

①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네한테 하지 말라구 해서…….”

탐골 박씨가 목덜미를 긁으며 쑥스럽게 웃자, 그중 좀 연장인 듯싶은 쪽이,

“동네에서는 매형이 고향엘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곤 매형이 제일 먼저 와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고 했어요. 와 가지곤 이렇게 매형 손으로 직접…….”

다시 탐골 박씨가 받아,

“글쎄, 이 사람들 얘기로 자네가 여길 제일 먼저 와보지 않음, 자넨 이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했다지 뭐가!”

나는 아버지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서 발가락 사이로 비집고 올라오는 흙의 찬 촉감을 즐기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외삼촌뻘이 되는 두 사람은 최씨집 오대 독자인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들의 억센 손아귀에 손을 잡힌 채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귀향을 진정 반기고 있구나 —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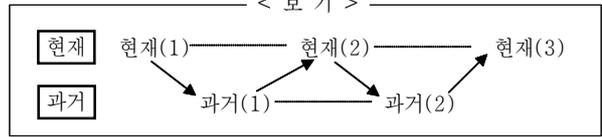
나는 내 출생 비밀의 현장인 흙더미 위에서 땅의 찬 서기(瑞氣)가 심장까지 힘차게 뻗쳐오름을 감지했다.

- 전상국, 「맥(脈)」 -

5.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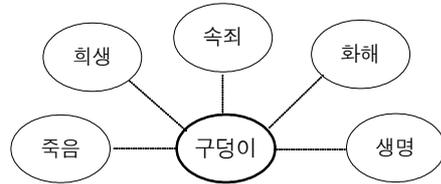
- ① ‘여자’는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 ②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은 ‘나’와 초면이다.
- ③ ‘완강한 팔목들’은 ‘아버지’를 끌고 간 사람들을 가리킨다.
- ④ ‘나’는 ‘탐골 박씨’를 통해 ‘아버지’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 ⑤ ‘세 사람의 남자는’ ‘김 구장의 두 아들들’과 ‘탐골 박씨’를 가리킨다.

6. 위 글의 시간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1)~(3)은 현재대로, 과거 (1)과 (2)는 과거대로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 ② 현재 (1)과 (2)에서는 ‘아버지’의 언행에 대한 서술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서술도 이루어지고 있다.
- ③ 과거 (1)과 (2)에서는 서술의 주체를 현재와 달리하고 있다.
- ④ 과거 (2) 다음에 한 행을 뺄으로써, ‘나’와 ‘아버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현재 (1), (2)와 과거 (1), (2)가 맞물리면서 현재 (3)의 사건이 갖는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7. 위 글을 바탕으로, ‘구덩이’가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의미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죽음 : ‘마을 사람들’이 파 놓은 ‘구덩이’는 ‘아버지’에게 죽음과 절망의 공간이었다.
- ② 희생 : ‘여자’의 희생으로, ‘아버지’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 ③ 숙죄 : ‘아버지’는 ‘돌무더기’를 걷어내고 흙을 파내는 ‘땀’의 노고를 통해, ‘나’의 숙죄와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 ④ 화해 :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이 ‘구덩이’ 속의 ‘아버지’에게 내미는 손은, 인물들 간의 화해를 의미한다.
- ⑤ 생명 : ‘구덩이’에서 파낸 ‘흙더미’에서 ‘나’는 ‘심장까지 힘차게 뻗쳐오르’는 생명의 기운을 느낀다.

8. 발화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 ‘……’에 생략되었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네를 거두고 싶어서 왔네.
- ② 미안하지만, 자네가 너무 과했구먼.
- ③ 말을 못했네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어쩔 수 없었네.
- ④ 말을 안 했네. 자네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네.
- ⑤ 말은 안 했네만, 그래도 자네가 괜한 일 한 것은 아니구먼.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찬비는 국화에 어울리지 않게 내리고 [A] 寒雨不宜菊
작은 술동이는 사람 가까이 있구나 小尊知近人
문을 닫으니 붉은 잎 떨어지고 閉門紅葉落
시구를 얻으니 흰 머리 새롭구나 得句白頭新
정다운 벗 생각할 때는 즐겁다가 歡憶情親友
적막한 새벽 되니 시름 더하네 愁添寂寞晨
그 언제나 반가운 눈길 마주하고 何當青眼對
크게 웃으며 양춘(陽春)을 불거나 一笑見陽春
- 박은(朴問), 「우중(雨中)에 택지(擇之)*를 생각하며」 -

*택지 : 박은의 친구 이행(李衍)을 가리킴.

(나)

간 밤에 불던 바람 천산에 비 뿌리니
구십(九十) 동군(冬軍)이 춘광(春光)을 자랑하듯
미쁨손 천지 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B]
나무 나무 잎이 피고 가지 가지 꽃이로다
방초(芳草)는 처처(處處)한데 춘풍 소리 들리거늘
눈 씻고 일어 앉아 객창을 열어 보니
객창에 **수지화(樹持花)**는 웃는 듯 반기는 듯
반갑다 저 꽃이여 예 보던 꽃이로다
낙양 성중에 저 봄빛 한가지요
고향 원상(園上)에 이 꽃이 피었는가
지난해 오늘날에 **웃음** 웃어 보던 꽃은
청준(淸樽)에 술을 붓고 꽃 꺾어 산(算)을 놓고
장진주(將進酒) 노래하고 무진무진 먹자 할 제
내 번화(繁華) 질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올해 이날에 **눈물** 뿌려 볼 줄 알까
아침에 나쁜 밥이 저녁에 시장하니
박잔에 흐린 술이 값없이 쉬울쏘나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아마도 이 고생이 수유간(須臾間)의 꿈이로다
전년 꽃 올해 꽃이 **꽃빛**은 한가지나
전년 사람 올해 사람 **인사(人事)**는 다르도다
- 안조원, 「만연사」 -

(다)

영숙(永叔)은 장수 집안의 후예다. 그 선조 중에 나랏일로 죽은 충신이 있으니 지금도 사대부들은 그 일을 슬피 여긴다. 영숙은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잘 쓰고, 옛일과 전거(典據)에 밝으며, 젊어서부터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해 마침내 무과에 급제하였다. 비록 벼슬은 운세 때문에 막히고 말았지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죽으려는 뜻은 죽히 선대의 위업을 이을 만하여 사대부들에게 부끄러울 게 없었다. 아! 영숙은 어찌하여 온 식술을 이끌고 예맥(穢糶)의 땅으로 가려 하는가?
전에 영숙은 나를 위해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에 집터를 봐 준 일이 있다. 산은 깊고 길은 험해 중일 가 봐야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곳이었다. 영숙은 나와 함께 갈대밭 가운데 말을 세우고 채찍으로 높은 언덕배기를 이리저리 구획하며 이런 말을 했다.

“저기에다 울타리를 치고 뽕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면 해마다 좁쌀 천 석은 거둘 수 있겠습니다.”

시험 삼아 부시를 치자 바람 따라 불이 번졌다. 그러자 평이 푸드득 놀라서 날고, 새끼 노루가 앞에서 튀었다. 영숙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그걸 쫓다가 시내에 막혀 돌아왔다. 이에 나를 보고 웃으며 이리 말했다.

“백년도 못 살 인생인데, 어찌 답답하게 나무와 바위뿐인 곳에 살며 조밥 먹고 평, 토끼나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영숙이 기린협(麒麟峽)에 살겠다고 한다. 송아지를 업고 들어가 그걸 키워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그곳에 소금도 메주도 없어 아가위와 들배로 장을 담가야 한단다. 그 험준하고 궁벽하기가 연암협보다 훨씬 심하니 어찌 같이 비교나 할 일인가. ㉠ 나는 갈림길에서 망설이며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거늘 감히 떠나는 영숙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길지언정 그의 곤궁함을 슬퍼하지 않으려다.

- 박지원,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주는 서」 -

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회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다)는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1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 ② [A]와 [B]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 ③ [A]와 [B]는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④ [A]는 반어, [B]는 비유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A]는 시각적 심상이, [B]는 청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박은은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가진 인물이다. 박은의 시에는 인생의 비애가 나타나 있으며, 잔뜩 찌푸린 우울한 풍경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 ① ‘찬비’를 맞는 ‘국화’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작은 술동이’는 ‘시름’과 관련하여 화자의 고뇌를 달래는 수단이겠군.
- ③ ‘문을 닫으니’는 세상을 대하는 강직하고 올곧은 화자의 성품과 관련이 있겠군.
- ④ ‘흰 머리 새롭구나’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였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적막한 새벽’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이겠군.

12.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 씻고’는 봄 풍경을 본 후 눈물짓는 모습으로 화자의 ‘고생 슬픔’을 짐작케 한다.
- ② ‘수지화’를 대하는 반가움을 의인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고향 원상’은 ‘낙양 성중’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 ④ 지난날의 ‘웃음’은 오늘날의 ‘눈물’과 대비되어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 ⑤ ‘꽃빛’과 ‘인사’가 대비되어 인간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3. <보기>를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박지원은 정서적 유대가 깊었던 누이를 잃고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친한 벗을 잃은 것을 계기로 연암협에 거처를 마련했다. 이 글을 쓸 당시 박지원은 서울과 연암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나고 자란 곳을 떠난다거나 벗들과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 ① ‘갈립길에서 망설인다’를 통해 글쓴이는 ‘연암협’과 서울의 생활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영숙’이 ‘기린협’으로 떠나는 것을 ‘감히~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글쓴이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갈등과 관련이 있다.
- ③ ‘그의 뜻’은 ‘영숙’이 ‘기린협’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영숙’이 ‘기린협’으로 가는 것을 ‘장하게 여긴다’에는 그의 선택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
- ⑤ ‘그의 곤궁함을 슬퍼하지 않으려다’에는 글쓴이가 ‘영숙’의 처지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

빠른정답.

1	5	3	5	4
4	3	5	3	1
4	1	3		

[1~4] (현대시) (가) 김기림, '추억(追憶)' / (나) 나희덕, '제로 지어진 옷' / (다) 박목월, '상하(上下)'

1. [출제의도] 작품들의 시상 전개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제1연과 제2연에서는 꿈 많고 지칠 줄 모르던 과거의 모습을, 제3연과 제4연에서는 과거의 모습을 상실한 현재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는 '무거움'과 '가벼움', '고요함'과 '격렬함'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나)에는 심상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는 시(詩)를 쓰는 공간인 '상층(上層)'과 생활의 공간인 '아랫층'의 대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다)에는 공간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출제의도] 작품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작품들을 비교·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나)와 (다) 모두 현실적 어려움과 대면하며 시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나)에 드러난 어려움은 시 창작자로서의 고통에 해당하고, (다)에는 시 창작자로서의 고통과 생활인으로서의 고통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참고할 때, (나)의 '저 사람'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는 모습은 시 창작자로서의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에서 '상층'은 시 창작의 공간을 의미하고 '공기가 희박하다'는 것은 시 창작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기가 희박했던 '상층'으로 올라감을 의미하는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는 것 역시 시 창작자의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과 ② (다)에서 '아랫층'은 생활인으로서의 공간이다. 따라서 화자가 '물을 마시러 내려가는' 모습이나 '지상에 하강'하는 모습은 생활인으로서의 고통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나)의 '흰 나비'의 '고요한 날갯짓'이나 '그'가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시 창작과 관련된다.

3.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1연과 제2연은 화자가 회상하고 있는 유년 시절의 추억에 해당하고, 제3연과 제4연은 현재적 삶에 대한 성찰에 해당한다. 제3연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게 된 것은 현재의 모습이 유년 시절과는 달라졌음을 표현한 것이므로, 현재의 모습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시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유년 시절에 해당하는 1, 2연과 현재에 해당

하는 3, 4연에서 '언덕'이라는 동일한 배경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을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반복되고 있는 공간인 '언덕'은 과거로 회귀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현재의 시간을 '노을'에 대응시켜 표현하고 유년 시절을 '아침'으로 표현한 것은 아침에서 해질녘으로, 다시 해질녘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순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인생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는 '꿈 많은 소년'이었던 화자의 정서를 '머-크리 수평선이 층계처럼 낮'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는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는 시적 상황을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라는 감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⑥에서 '비를 맞으며'와 '비를 맞지 않으며'는 서로 모순된 진술로, 이러한 모순된 진술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시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⑦를 원래 어순에 맞게 고치면 '그는 흰 재로 지어진 옷 한 벌 남몰래 가졌을까'이다. 시인은 ⑧에서 '흰 재로 지어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어순을 도치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⑥에서 '발바닥'은 의인화된 대상은 아니므로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5~8] (현대소설) 전상국, '맥(脈)'

5. [출제의도] 인물의 특징과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아버지'의 귀향길에 동행해 아버지의 입을 통해 과거의 사연을 듣게 된다.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한편, 그러한 아버지의 삶이 자신의 인생으로 '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오답풀이] 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나'의 친어머니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자'는 아버지가 고향에 있었을 때의 부인으로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② '사십 전후가 돼 보이는 두 사람(김구장의 두 아들들)은 ~ 내게는 초면인 얼굴들이었다.'라는 구절에서 이들이 초면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완강한 팔목들이 그의 양어깨를 감싸고 있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과거 (2) 다음에 한 행을 뺏으로써 소설의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보기>의 현재 (3)을 가리키는데, '나'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파던 '구덩이'가 '출생 비밀의 현장'이었음을 감지하게 된다. '나'와 '아버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현재 (1)에서 '나'는 '세 사람의 남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다음 장면인 과거 (2)에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집에 끌려갔

던 경험을 털어 놓는다. “그리고 예까지 끌려왔던 거다.”라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 이야기는 다시 현재 (2)로 향한다. 아버지는 구덩이를 파며 ‘그것만 풀어주면 목 놓아 영영 울고 싶었다’로 시작되는 과거 (2)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과거 (2)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대신해 죽은 ‘여자’의 희생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다. 과거 (2) 다음에 한 행이 떨어져 시간은 현재 (3)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은 각각 연속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가 맞물려 현재 (3)에서 벌어지는 아버지와 ‘김 구장의 두 아들들’과의 화해, ‘나’의 ‘출생 비밀의 현장’에 대한 인식 등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② 현재 (1)에서는 ‘행색이 ~ 보였다.’, 현재 (2)에서는 ‘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에서 내가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버지’는 ‘여자’가 죽은 장소인 ‘구덩이’의 ‘돌무더기’를 걷어내고 흙을 파내는 ‘땀’의 노고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속죄하고 반성하게 된다. ‘나’의 반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8. [출제의도] 상황을 파악하여 발화의 생략된 부분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그 얘기’에 해당하는 것은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이 ‘여자’의 무덤을 옮긴 것이다. ‘아버지’가 마을에 온다면 ‘여자’의 죽음의 현장에 가장 먼저 들러 직접 유골을 수습하며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무덤을 옮겼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게 되면, 이러한 속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탑골 박씨’는 이러한 이야기를 ‘아버지’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덤은 이미 옮겨져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구덩이’를 판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괜한 행동이 되었지만, 결국 ‘김 구장의 두 아들들’과 화해하게 되었으므로, 의미 있는 행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13] (갈래 복합) (가) 박은, ‘우중(雨中)에 택지(擇之)를 생각하며’ / (나) 안조원, ‘만연사’ / (다) 박지원,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주는 서’

9.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와 (다)는 과거의 일을 회상함으로써 화자가 접하는 상황에 대한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지난해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림으로써 현재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정서를, (다)의 글쓴이는 ‘영숙’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현재 ‘영숙’이 취하는 행동에 대한 글쓴이의 착잡한 심회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10. [출제의도] 시구가 시 전체에서 갖는 기능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와 [B]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A]에서는 국화에 찬비가 내리는 상황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과 더불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나무와 가지마다 핀 꽃을 제시하여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과거와 비교하며 인식할 연상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A]에서는 ‘찬비’와 ‘국화’가, [B]에서는 ‘잎’과 ‘꽃’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11. [출제의도] 새로운 자료를 참고하여 작품을 다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흰 머리 새롭구나’는 시를 쓰는 행위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작가는 강직하고 울곧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비애를 담은 시를 많이 썼다. 여기에서 인생의 비애가 담긴 시를 쓰는 행위는 자신의 삶으로 괴로워하는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그렇게 괴로워한 결과 자신이 육신적으로 노쇠해졌음을 새삼 깨닫는다는 의도로 ‘흰 머리 새롭구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흰 머리 새롭구나’는 작가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괴로워한 결과이므로 ㉠에서처럼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것에 연결한 것은 무리가 있다.

12.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눈 씻고’는 화자가 자신의 주변을 자세히 보기 위해 눈을 비비는 행위이므로, ‘봄 풍경을 본 후 눈물짓는 모습’으로 연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봄이 되어 봄바람 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눈 씻고’를 부정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심리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영숙’이 ‘기린협’으로 떠난 것은 ‘영숙’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다)의 첫 문단에서 ‘영숙’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벼슬길이 막혔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영숙’이 ‘기린협’으로 떠난 것은 벼슬길이 막힌 데 따른 곤궁한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영숙’이 ‘기린협’에 대해 ‘강한 애착’을 지니고 있었다고 파악하는 것은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